국면전환 위한 만능 ‘얼굴 돌리기’

(역대하 29:1~11)

3.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4.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5.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6.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7.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8.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9.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10.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11.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국면전환 위한 만능 '얼굴 돌리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국면전환 위한 만능 '얼굴 돌리기'
모든 국면을 얼굴 돌리기 하나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정치판에서 국면전환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부정적인 차원에서 국면전환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국면전환용 도발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김정은 정권이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런 국면을 전환하고 돌파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2016년 11월 2일자 뉴욕타임스에는 한국의 개각 문제를 다루어 국면전환용 총리 인사에 대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최순실게이트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할 조짐이 보이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면전환을 위해서 드러나게 특별한 잘못이 없었던 황교안 총리를 사임시키고, 한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 참모를 지냈던 김병준 씨를 총리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 개각의 움직임을 뉴욕타임스에서는 국면전환용 개각으로 기사화했었습니다.
이처럼 국면전환은 부정적 의미로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는 정치적 공작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본래는 우리 삶의 과정상 늘 요청되는 일입니다. 걱정스럽고 두려운 국면은 전환시켜야만 합니다. 앞날이 깜깜하고 우울하기 그지없고 암울한 상황도 전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면전환이 필요할 때에 만능전환방법이 바로 얼굴 돌리기입니다. 우리 삶에서 얼굴만 잘 돌리면 어떤 국면이든지 극적인 반전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 왕국 유다의 제13대 왕인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앞서 보았던 여호사밧 왕과 이후에 나올 요시야 왕과 함께 남 왕국 유다의 3대 성군으로 꼽히는 왕입니다. 32장까지 많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성전정화작업을 합니다. 이 내용이 곧 모든 인생의 국면은 얼굴 돌리기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의 상황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히스기야는 BC.728년부터 13년 정도를 아버지 아하스와 함께 통치를 했고, 715년부터 단독통치를 시작하여 29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죽을병에 걸렸다가 기도하여 15년의 수명을 연장 받은 기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통치한 기간까지 포함하면 42년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와 함께 통치하던 시절에 패배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군을 결성하여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십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으나 북 왕국의 선지자 오뎃으로 하여금 겨우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에돔과 블레셋의 감당할 수 없는 침략을 받아 나라가 위기에 처합니다. 그 때에 앗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남 왕국을 수탈하고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왕으로 등극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 시대에 남 왕국 유다가 어떠한 곤고함을 경험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처하기 위한 국면전환을 꾀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생각해낸 정책은 백만의 군사를 만들고 애굽과 외교를 맺는 등의 정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식으로 대처하지 않고 이 암울한 상황이 주어진 이유를 다른 면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라고 합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을 막지 못한 이유를 군사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앗수르에게 수탈을 당하고 속국처럼 되어버린 것도 국력이 약하고 외교를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 파악했습니다. 이것이 국면전환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깨달음이 됩니

다.
예를 들어 히스기야가 우리나라의 정치인이었다고 한다면 부당한 정치적 공격을 받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외적의 침입이 연속적으로 일어났고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계속될 것 같은 국면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떠나게 할 마음으로 얼굴 돌리기를 합니다.
6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라고 합니다. 성소를 등졌던 자신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얼굴 돌리기를 할 때에 이 진노를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국면전환을 위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좋은 길입니다.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빌려서라도 돈을 손에 쥐려고 하겠지만 이러한 행동은 국면전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불편함이 생기고 평강이 깨지는 일이 발생하면 국면전환이 강력하게 요청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므로, 무조건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 혹은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면전환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평강이 깨어진 현실이 어떻게 전환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려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합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성전 문이 봉쇄되었습니다. 성전기구들과 성전 마당의 번제단을 치우고 다메섹의 신들인 앗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이동식 제단을 본 딴 제단을 지어놓고 우상숭배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자 세우신 성전을 향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전을 정화하고 재정비시켰던 것입니다. 망가졌거나 이탈되었던 모든 기구들을 수리하고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이 정책이 특별히 영적으로 의의가 있습니다. BC.728년에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함께 통치에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6년이 지난 BC.722년에 형제이자 선민의 나라인 북 왕국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히스기야는 직접 보았습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이 존재하던 때에는 북방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무자비한 앗수르의 힘이 제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 왕국 이스라엘이 망하자 이제 남 왕국이 앗수르라는 위기 앞에서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얼굴 돌리기의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앗수르에 속국 취급을 당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는 북쪽에서 방패노릇을 해주던 북 왕국 이스라엘조차도 사라져버리고, 앗수르의 공격을 막을 아무런 힘이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 히스기야는 온 나라에 하나님께 얼굴 돌리기 정책을 공표합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국면전환을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결국 생활 속에서 얼굴 돌리기입니다. 어떤 위급한 국면일지라도 평강과 감사와

기쁨과 복지의 국면으로 전환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로 얼굴 돌리기를 해야 합니다. 평강이 깨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인 것을 히스기야 왕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모세가 장대에 구리 뱀을 단 것에 비유하십니다.
장대 위의 구리 뱀을 보아야 했던 때는 원망 불평하다가 불 뱀에 물려서 맹독이 온몸에 퍼지던 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히스기야는 앗수르에 의해 국가가 풍전등화의 위기상황에 처하자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렸던 것입니다. 온 몸에 맹독이 퍼지고 있다면 그보다 위급한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몸에서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불 뱀의 맹독처럼 마음을 휘어잡는 위급한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등을 돌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얼굴 돌리기를 할 때에 국면전환이 됩니다.
앞으로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되겠습니다만, 앞서 살펴보았던 열왕기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아버지 아하스 왕 때의 위기의 상황은 혁명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얼굴돌림은 곧 성전을 생활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모든 백성들은 마음으로 성전을 바라보게 되는데 성전의 구성을 내 마음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법궤가 있었고 그 안에는 말씀의 돌판이 있었듯이, 내 마음의 지성소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죽어야 될 자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죽고 다시 태어난 자로서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얼굴 돌리기를 한다면 국면전환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시면서 선민으로 택하신 이유는 우리 삶의 상식이 바뀌어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상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공부를 해도 자식을 키워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를 사귀고 이웃과 관계를 할 때에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 돌리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모든 국면이 전환되고, 우리의 삶은 평강과 복지의 에덴으로 국면전환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살고 나는 죽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의 삶은 하나님이 사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 모세가 광야

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땅에 내려 보냄을 받은 이유도 하늘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땅에서 땅을 사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선민일 필요도 없고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선민은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면서 마음은 하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땅의 삶은 하나님께서 살아주십니다. 우리는 땅에서 하늘을 살고, 하늘은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국면은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면전환은 성전과 성전의 의미가 함축된 십자가를 그저 바라보는 주술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것은 인격적 사건입니다. 우리 삶에서 국면전환이 요청되는 위급한 사건들이 있을 때에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동선을 따라 마음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굴돌림이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대로 다 없지만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원을 풀이하면 건강하면 마음이 기쁘겠다는 뜻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등 돌린 상황입니다.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깨진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건강 상태가 아무리 위급하더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건강하면 기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 마음은 건강이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기쁘고 만족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얼굴 돌리기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입니다.
명품백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명품백에 얼굴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얼굴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는 것은 다른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떠올리며 죽는 것입니다. 외제차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만으로 기쁘고 만족하기를 바라는 것이 얼굴 돌리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차에 대한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나가실 것입니다. 직장문제 결혼문제 건강문제 돈 문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의 어려운 국면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곧 그쪽으로 얼굴을 향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생활화했듯이 우리는 십자가를 떠올려서 십자가 생활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다 없지만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이 없다고 불평하던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얼굴 돌리기가 이루어지면서 국면전환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을 소원하는 얼굴 돌리기를 통하여 원죄로 인해 국면전환에 필요가 요청되는 모든 순간들을 기꺼이 승리하며 뚫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